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첫발 재도전 끝 예타조사 대상 선정

전남대학교병원 새 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 지역민 숙원사업인 새 병원 건립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전남대병원 새 병원 투시도.

2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재부가 개최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는 지난 8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탈락된 뒤 두 번째 도전만에 이룬 성과다.

전남대병원은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건립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전남대

2단계에 걸쳐 신축할 새 병원은 1단계(동관 건물)로 오는 2030년까지 전남의 대 학동캠퍼스와 전남대 간호대학 부지에 700병상 규모로 신축 건물을 완공한 후 기존 1동·3동의 진료 기능과 어린이 병원(6동) 및 부속동(2동)의 진료 기능을 이전, 개원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과 광주·전남 지역민의 새 병원 건립 요청에 광주시와 여당·야당

광주시·여야 정치권 총력 지원 성과

안영근 병원장 "지역의료 발전 견인"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 병원을 건립하기로 확정하고 지난해 11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년간 사전타당성 분석에 나선 결과,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시행 정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 등 정부정책 및 상위 계획 등과 부합되고 경제적 타당성(B/C) 역시 2.27로 사업성을 확보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10월 기재부에 새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다시 제출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은 1천300병상, 연면적 27만㎡(8만1천675평)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34년까지 11년간 1조2천150억원(국고 3천40억원, 자부담 9천1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등 정치권도 힘을 보탤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안영근 병원장, 윤경철 기획조정실장과 두 차례(7월15일, 12월26일) 만나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전남대병원을 찾아 새 병원 건립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비롯한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의 필요성 및 국비 지원 상황 등을 요청하며 힘을 실어줬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광주·전남 지역민은 물론 광주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 모두 많은 도움을 준 끝에 역사적인 새 병원 건립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단순 병원 신축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닌 지역 의료 수준을 끌어올려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서진 "상고 포기"...어등산개발 속도 낸다

"무조건 수용 모든 사안 협조"...姜시장 "무한 감사"

신세계프라퍼티, 오늘 복합쇼핑몰 사업 계획서 제출

법원이 광주시와 서진건설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서진건설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해 어등산 개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진건설의 공식 입장 발표와 동시에 신세계프라퍼티는 28일 어등산 복합쇼핑

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어서 장기 표류해온 어등산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환진 서진건설 대표이사는 2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이사는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되찾기 위해 광주시를 상대로 재판을 했고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 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 개발이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고 광주시민의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향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시 소모적인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진건설의 입장 발표 이후 강기정 시장은 차담회를 열어 "서진건설이 광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와 관련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1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서진건설의 결단으로 이제 새로운 희망의 전기가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등산 관광단지를 대한민국 NO.1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협약이행보증금 48억원도 하루 속히 인도하겠다"고 약속했다. ▶2면에 계속 /박선경기자



폭설 피해 현장 대민지원 '구슬땀' 광주·전남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하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대민 지원에 나선 특전사 황금박쥐부대 장병들이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담양의 한 노년진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영근 기자



광주 돌봄·창업·영산강Y벨트 3대 기회 육성 전남 글로벌 도정·균형발전·행복공동체 건설

●내년 광주시장·전남도정 방향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시·도정 운영 방향을 각각 돌봄·창업·영산강Y벨트 등 3대 기회 육성과 글로벌 도정·균형발전·행복공동체 건설로 설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막연하고 실제 없는 희망이 아닌 돌봄, 창업, Y벨트

로 대표되는 광주의 기회와 희망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돌봄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건강한 삶의 기회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원하는 때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4월부터 기존 돌봄 서비스의 빈틈을 메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둔형외톨이·1인가구·장애인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도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 시민과 함께 안전감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높인다. 광주의 주력 분야인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집적된 연구·실증·인증 기관들을 적극 활용해 미래 산업을 주도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비 확보로 탄력을 받은 ▲AI 집적단지 2단계 고도화 사업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100만평 규모의 미래차국가산단 지정 ▲광주인공지능(AI)영재고 설립과 인공지능(AI)교과서 개발을 통한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 등에 박차를 가한다. ▶2면에 계속 /김재정·박선경기자

Today
인터뷰·전갑수시체육회장당선인 5면
어설문 제철작업 법판길사속속출 6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만경강 14면

희망2023나눔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적극가능한 미래
성금 접수 계좌
광주사랑의열매: 063-107-999990(광주은행)
전남사랑의열매: 301-4000-3000-01(농협은행)

존경하는 광주시민과 시장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여러분!

저희 서진건설그룹은 지난 2005년 개발계획 수립 후 17년여 동안 아무런 진척도 없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어등산 개발은 광주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중요한 사업인데도 그동안 대한민국 어느 기업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 오늘날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기업들로 성장했으면서도 사업 수익만을 생각해 어등산 개발사업을 외면해 왔습니다.

서진건설그룹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고향인 광주시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진행된 공모에는 서진건설그룹 외에 대한민국 내 어느 회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뤄졌던 2차례의 공모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 철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진건설그룹은 당시 공모에 유일하게 참여해 4개월 후인 7월 23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광주시 및 광주도시공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모지침에도 없는 48억 원을 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했으며, 사업 시행 기관인 광주도시공사와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서진건설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3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지루한 소송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희 서진건설그룹은 대한민국 어느 기업보다도 성실한 기업이라고 자부합니다.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모든 정성을 바쳐 내 고향 광주를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했고, 지금도 그런 심경에는 추후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서진건설그룹은 어떻게든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되찾기 위해

광주시를 상대로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으로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 개발이 또다시 장시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 데다, 광주시민의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희(주)서진건설그룹으로서 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다시 소모적인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진건설그룹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광주시민께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저희 서진건설그룹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습니다.
2. 민선 8기를 이끌어 가시는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광주시의 요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광주시장님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여러분!

서진건설그룹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간직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2. 12. 28.